

##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이 우연\*\* · 차 명 수\*\*\*

### 논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노비 매매 문기에서 수집된 거래 정보에 헤도닉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조선 후기의 연령대별 奴와 婢 가격, 그리고 노비 가격 지수 시계열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노의 가격이 30대에, 비의 가격은 20대에 절정에 달하는 뒤집어진 U 모양의 연령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명목 노비 가격 지수는 곡물 가격 및 토지 가격과 유사한 시간 추세를 따랐는데 이는 통화 공급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명목 가격을 쌀 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실질 奴婢 가격 지수는 18세기 동안에 하락한 뒤 19세기 초에 안정되었다가 19세기 중·후반에 다시 하락했다. 이 같은 장기 추세는 이자율, 사망력, 노비 관리비용 변화 추세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 임금 하락에 나타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주제어: 조선 후기, 노비 가격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31, N35

투고 일자: 2010. 5.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10. 6. 30.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11.

\* 이 논문은 2007년의 학술진흥재단의 지원(KRF-2007-322-B00010)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2008년 51회 전국역사학대회와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조선후기에 생산력은 발전하고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뒤 수정을 거쳐 현재의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사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참석자들, 특히 양동휴, 이영훈, 이철희 교수의 커멘트에 감사한다. 아울러 수정본을 읽고 의문을 제기해 준 홍제환씨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 wooyoun@skku.edu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e-mail: mscha@ynu.ac.kr

## I. 서론

조선 사회는 양반, 양인 그리고 노비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였다. 노비는 17세기에 전체 인구의 약 3-4할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선 사회 신분 질서에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던 노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신분제도로서의 노비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노비 신분은 어떻게 등장해서 노비 제도는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지, 조선의 노비제도는 고전 고대나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노예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노비 제도 전개에 영향을 미친 조선 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에 주로 연구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노비 제도의 노동시장 제도, 특히 인신 매매 제도로서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조선 후기의 男奴와 女婢 간의 가격 차이, 노나 비의 연령대별 가격 차이, 세습 노비와 자매 노비 사이의 가격 차이, 그리고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나 비 가격 추세에 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없다. 노비 가격을 추정한 기존 연구가 있지만 소량의 데이터와 反사실적인(counterfactual)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노비 가격에 미치는 연령과 같은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노비 제도에 대한 수량적 연구가 희소한 것은 두 가지 사정 때문이다. 하나는 노비 매매 문기에서 수집된 노비 가격 정보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 문기에 나온 노비 가격 정보로부터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나 비 - 예를 들어 20대의 비 -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이는) 여러 명의 노와 비가 한 묶음으로 거래되었고 매매 문기에는 이들을 거래한 총액만이 적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노비 가격 관측치의 수를 확충하고 여기에 헤도닉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18, 19세기 노비 가격의 횡단면적 구조와 시간 추세를 추정한다. 그 결과는 조선 후기 노비 제도의 성격과 노동 시장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수준의 추이를 말해주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 노비 제도의 盛衰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노비 가격 자료에 관해서 해설하고 제Ⅳ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설명한 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제Ⅱ장에서 제시한 가설의 틀 안에서 해석한다. 마지막 제Ⅴ장은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 Ⅱ. 조선시대의 노비제도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성격도 변해갔다(이영훈, 1998).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 노비 제도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슈 중 하나는 노비가 유럽의 고전고대 또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예(slave)에 가까운 존재인가 아니면 유럽 중세의 농노(serf)에 가까운 존재인가라는 질문이다. Palais(1996, p. 41)는 조선 인구의 1/3 정도가 노비였다는 추정을 근거로 조선 사회를 “노예 사회(slave society)”라고 불렀는데 이영훈·양동휴(1998)은 조선의 노비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었지만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노예와 상당히 다른 존재였음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조선 노비 중 상당수는 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공민권, 법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 소경영자였다는 것이다.<sup>1)</sup>

이 같은 차이는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이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반영한다. 조선 시대에 노비와 양인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이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주체가 왕권인지 아니면 양반 귀족들인지였다. 조선 시대의 양인 농민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었고 동시에 상위 신분인 양반들의 자의적, 불법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노비들은 신분적으로는 부자유했지만 노비 소유주에 대해서만 오랜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제적 의무를 졌다.<sup>2)</sup> 그래서 농민들, 특히 하층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양인 농민으로 사는 것이 노비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낫다고

1) 전형택(1990a; 1990b)과 김용만(1997, pp. 246-267)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노비도 있었고 또 노비를 소유한 노비도 있었으며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2) 이는 주로 立役 奴婢에 적용되는 서술이다. 納貢 奴婢는 국가에 대해 군역을 면제받지만 기타 잡다한 徭役과 貢物을 납부해야 했으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結稅도 납부해야 했다.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양인의 신역을 면포 2필에서 1필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1결당 3두씩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므로 토지를 가진 노비는 1750년 이후 신역의 일부도 부담하게 되었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노비 신분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16세기에는 양인 농민들이 군역이나 기타 잡역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신을 양반 가문에 의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노비 인구가 증가했다(Palais, 1996, p.225). 또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18세기 말부터는 자신과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다.<sup>3)</sup> 반대로 노비로서의 생활이 양인 농민으로서의 생활보다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농민들은 도망쳐 다른 지방에서 자유인으로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전형택, 1992). 양난을 치르기 위해 국가가 東伍軍, 納粟免賤 등의 정책을 통해 노비가 양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자 많은 노비들이 왕권에의 예속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시대에 농민들이 항상 자유롭게 양인과 노비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극대화하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投託과 自賣는 불법이었고 도망친 노비는 노비주의 추쇄를 걱정해야 했으며 속오군 편성이나 납속책과 같은 정책은 전쟁이나 기근 같은 비상 상황에서나 정부가 내놓게 되는 것이었다. 즉 농민들의 신분 선택 가능성은 일정한 제약 아래 놓여 있었는데 농민들이 신분을 어느 정도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 정치 상황, 특히 왕권과 양반 귀족 간의 세력 균형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한 시기에는 농민들은 마음대로 投託이나 自賣를 통해서 노비가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양인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므로 강력한 왕권은 양인 농민들이 노비가 되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양반들에게 바치는 것을 두고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왕권이 강할 때에는 양반들의 자의적 수탈이 약했을 것이므로 농민들은 굳이 인신적 자유를 포기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양반 계급의 세력이 강해지면 양반들의 추가적 수탈이 강화되므로 인신적 자유를 포기할 인센티브가 커질 뿐 아니라 실제로 포기하기도 쉬워졌을 것이다. 이는 왕권의 강도와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비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왕권이 강할 때에는 노비 제도가 쇠퇴하고 양반 귀족 세력이 강할 때에는 노비 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해 준다. 고려를 건국한 뒤 918년 태조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

3) 김재호(2005)와 이정수·김희호(2008a, pp. 375-376)를 보라. III장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사용한 자료의 분포에서도 18세기 후반부터 자매 노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화하기 위해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956년 광종은 奴婢按檢法을 실시하고 원래 양인이었던 농민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는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성종은 987년 奴婢還賤法을 실시해서 노비안검법에 의해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신분으로 되돌려 줄 수 밖에 없었다. 고려 시대 말에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상민들이 權貴, 寺院에 자신을 투탁했다.

조선 건국으로 중앙 왕권은 고려 말에 비해 강화되었다(Duncan, 2000, pp. 275-276). 이를 잘 보여 주는 사실 중 하나는 세조가 실시한 1461년 호구제 개혁으로 전국 호총이 20만에서 130만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호구제 개혁으로 국가는 고려 말에 권문세가 밑으로 들어갔던 농민들에게 다시 균역(신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노비가 되어 버렸다(이영훈, 1998, p. 381). 조선 건국으로 왕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양반 사대부들이 향리, 내시 등과 같은 경쟁관계에 있던 집단들을 제거하고 국왕에 맞서는 강력한,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Duncan, 2000, p. 276).<sup>4)</sup>

조선 초기에 노비 제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양반 세력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음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1468년에 제정된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몇 가지 예외를 두면서도 기본적으로 一賤則賤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규정했다. 一賤則賤의 원칙 아래서는 노비 수 증가가 일어나고 따라서 징세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국왕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一賤則賤은 양반 노비 소유자에게는 유리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노비 번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었다. 경국대전에서 신분 세습 원칙으로서 一賤則賤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조선 초기의 왕권이 고려 말에 비해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양반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一賤則賤의 원칙 아래서 노비 인구는 조선 전기에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노비 인구 증가는 조선 전기의 “率下 노비의 부역 노동에 기초한 직영지적 농업 경영”이 지배적인 생산 조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sup>5)</sup>

4) 그래서 세조의 호구제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개혁이 농민을 勢家の 노비로 몰아 준 꼴만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이영훈, 1998, p. 381).

5) 이영훈(1998, p. 382)에 따르면 “조선왕조가 사실상 방치한 양천교훈과 고려시대 이래의 一賤

노비 수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자 16세기 말 李珣는 신분 상속 원칙을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노비 신분을 이어 받는 것, 즉 從母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alais, 1996, p. 231). 그러나 노비 신분 세습 원칙 변경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난이 터졌고 조선 정부는 병력과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納粟策을 실시하고 奴도 군인으로 입역할 수 있는 東伍軍을 창설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奴를 천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 시작했다. 17세기의 노비 수 추이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양난기에 실시된 이 같은 정책으로 노비 수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토지에 비해 희소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토지 및 노비 소유 계급인 양반 계급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sup>6)</sup>

현종 재위 기간(1659-1674)에 실시된 反 노비제도 정책은 양반과 왕권 사이의 세력 균형이 크게 변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현종은 公奴婢 신공을 반 필씩 경감하고 노비 추쇄를 제한했으며, 從母法을 시행하고, 노비 호구를 독립 主戶로 등록시켰는데 그 결과 1660년대에 호충이 급증했다(전형택, 1989, p. 109). 현종은 인구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과 더불어 己酉量田을 통해 時起田, 新田을 과세 대상지로 확보해 나갔다. 뒤이어 숙종대(1674-1720)에도 호충과 구충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庚子量田(1719-20)이 실시되어 토지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강화되었다.<sup>7)</sup> 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 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세수 증대를 이룩한 숙종은 세 차례의 換局을 통해 봉당 간의 대립을 촉발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는데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士林들의 봉당 정치에서 영·정조기의 탕평정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8)</sup>

從母法은 1675년에 폐지되었다가 1684년에 부활되고 1689년에 다시 폐지되는

---

則賤의 세습원리에 의해 노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양친교혼은 노비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이에 노비주들은 교혼을 강요하였다.” 조선 전기의 노비 노동을 사용하는 농장제에 관해서는 이호철(1986, p. 751)을 보라.

- 6) 선조실록에 따르면 1600년 이항복은 인구가 정상 수준의 1/10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용출(1998, p. 185)에서 재인용.
- 7)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의 호적은 실제의 구수와 호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17세기말과 18세기 초에는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임학성(1992)에 따르면 1678년의 단성 호적에서 노비의 16%가 솔노비로 그리고 주호로 이중 등재되어 있었다. 현종과 숙종대의 양전을 둘러싼 왕권과 양반들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는 이세영(2002)을 보라.
- 8) 이에 관해서는 홍순민(1986)을 보라.

우여 곡절을 겪다가 1731년 영조의 결정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들로 알려지고 있는 영조와 정조는 從母法 이외에도 노비 살해를 처벌하고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노비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여러 정책들을 실시했다(정석중, 1983, pp.109-118). 아울러 영조와 정조는 定總法 실시, 추쇄 금지를 통해 公奴婢 제도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조장했다(전형택, 1989, pp.121-154; 平木實, 1982, pp.91-128).

영·정조대에 실시된 이 같은 반노비제도 정책은 18세기 노비인구 감소를 가져온 한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쇄 제한 조치는 노비들이 도망을 통해 노비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종모법은 노비 신분의 남자가 양인 신분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식들을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sup>9)</sup> 그래서 四方博(1938)이 大邱府 호적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노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0년의 43%에서 1789년의 16%로 감소했다. 그리고 정석중(1983)의 울산 호적 분석은 솔거 노비 인구가 1729년 555명에서 1765년 285명으로 감소했음을 보여 준다.

19세기 들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리고 여흥 민씨 같은 유력한 양반 가문들이 허수아비 같은 왕의 배후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도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권력이 왕권으로부터 양반 귀족으로 이동하면서 반노비제도 정책은 중단되었는데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노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적어도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四方博(1938)의 연구는 大邱府에서 노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9년의 16%로 감소한 이후 1858년에는 다시 31%로 증가했음을 알려 준다. 정석중(1983)의 울산 호적 분석에 따르면 솔거 노비 인구는 1765년 285명으로 감소한 뒤 1804년에는 488명으로 증가했고 1867년에는 287명으로 다시 감소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솔거 노비의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武田幸男(1983)은 진해 호적을 분석한 결과 노비 수가 1825와 1876사이에 84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비 수가 18세기 초·중반에 감소했지만 이후 19세기 초까지 증가한 뒤 다시 18세기 중엽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 같

9) 특히 종모법은 18세기에 공노비 숫자를 감소시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17, 18세기 단성호적을 분석한 김상환(1989)에 따르면 공노비 숫자가 18세기에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 원인은 도망과 아울러 良賤交婚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파악한 노비 수 변화에는 18세기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자매 노비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양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판매하는 일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비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호구 조사 당국에는 양인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매 노비의 등장까지 고려한다면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18세기와는 대조적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던 19세기 전반에는 노비 인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 Ⅲ. 노비 가격자료

조선시대의 노비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 기록된 노비 가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정석중(1983)은 노비 매매 기록으로 부터 약 150건의 노비 거래 기록을 모아 정리하고 발표했으며 이정수·김희호(2008a; 2008b)는 여기에 약 140개의 기록을 추가해서 노비 가격의 장기 추세를 추계했다. 김재호(2005)는 조선 후기에 양인들이 스스로를 노비로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음을 보이고 46건의 自賣 노비 매매 거래 정보를 소개했다. 이런 선행 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노비 거래 기록을 취합 정리해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324건에 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465 건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서 모두 789건의 노비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sup>11)</sup> 이 수치들은 1543-1899년 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기에서 채취된 것이며 이 789건의 거래에서 사고 팔린 노비 수는 총 1,763명에 달한다. 이들 노비 문기 자료의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2>는 우리가 사용한 자료가 시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패널 A에 제시된 거래 건수나 패널 B에 제시된 거래 노비 수의 분포는 모두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거래 건수와 거래 노비 수 분포 사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차이는 19세기 전반에는 18세기 후반에 비해 거래 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거래 노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른 시기에 비해 늦은 시기의 자료나 관측치 수가 더 많은 것은 노비

10) 김재호(2005, p.5)도 노비 인구 수에 대해 비슷한 추론을 하고 있다.

11) 김희호·이정수(2008a)는 293건, 김재호(2001)은 46건의 노비 매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15 건이 중복되므로 이 두 연구에서 사용된 노비 매매는 293+46-15=324건이 된다.

〈표 1〉 노비 문기 자료의 출처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규장각		34	135	133	302
고문서집성	10	33	46	37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원문정보시스템)	3	32	15	3	53
한국국학진흥원 (원문정보시스템)		10	17	17	44
영남고문서집성	14	6	13	8	41
경북지방고문서집성	8	14	11	4	37
전북대학교박물관 (고문서집)		10	16	9	35
전북대학교도서관 (원문정보정보시스템)		1	18	13	32
영남대학교도서관			9	17	26
기타	4	11	41	37	93
계	39	151	321	278	789

〈표 2〉 자료의 시기별 분포 (%)

A. 거래 건수 분포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합계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4.9	5.8	13.3	19.1	22.6	18.1	40.7	19.8	15.5	35.2	100.0

주: 시기 별 거래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퍼센트에 총 거래 건수 789를 곱하면 된다. 16세기 후반은 1640년대의 4건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에도 적용된다.

B. 거래 노비 수 분포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합계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4.4	6.2	16.8	23.0	22.9	20.2	43.1	18.4	11.1	29.5	100.0

주: 시기 별 거래 노비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퍼센트에 총 거래 노비 1,763명을 곱하면 된다.

시장의 발전이나 성장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에서 먼 시기일 수록 당시의 자료와 기록이 유실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반대로 이른 시기에 비해 나중 시기의 자료나 관측치 수가 적은 것은 실제로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노비 시장이 위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 2〉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18세기 후반 들어 노비 거

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18 세기에 노비 인구가 감소했다는 四方博(1938) 이나 정석중(1983)의 주장과 정합적이다. 19세기 전반에는 노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을 수 있으나 19세기 후반이 되면 노비 거래는 매우 위축되었던 것 같다.<sup>12)</sup>

〈표 3〉 거래 당 매매되는 평균 노비 수의 추이 (명)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시기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2.0	2.4	2.8	2.7	2.3	2.5	2.4	2.1	1.6	1.9	2.2

〈표 3〉은 노비 거래 1건당 매매 되는 평균 노비 수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보여 준다. 전 시기에 걸쳐 평균 거래 노비 수는 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거래 되는 평균 노비 수는 16세기 후반 2명에서 증가해서 17세기 후반에 정점인 2.8명에도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세기 후반에 1.6명으로 떨어졌다.

〈표 4〉 노비 거래 건수의 거래 규모 별 분포 (%)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1명	56.4	39.1	51.4	47.7	44.9	46.2	45.5	50.6	71.3	59.7	51.5
2-5명	38.5	54.3	42.9	46.4	50.6	47.6	49.2	47.4	27.0	38.5	44.4
6명 이상	5.1	6.5	5.7	6.0	4.5	6.3	5.3	1.9	1.6	1.8	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는 거래 규모 분포가 시기 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는 거래 규모를 1명, 2-5명, 6명 이상의 세 종류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 중 2-5명이 매매 되는 거래는 하나의 노비 가족 전체가 거래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1명이나 6명 이상이 한 번에 매매되는 거래는 가족을 해체해서 뿔뿔이 매매하거나 둘 이상의 가족을 묶어서 거래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명을 매매하는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0년경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다가 19세기, 특히

12) 김용만(1997, 280)은 이 같은 추세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사하였으며, 이정수·김희호(2008a, p.370)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거래 건수의 변화를 추적한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이다.

19세기 후반 들어 증가했다. 반면 6명 이상을 매매하는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들어 현저히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규모별 분포의 비중 변화가 <표 3>에서 본 것과 같은 건당 평균 거래 노비 수의 감소를 가져 온 것이다. 2-5명을 거래하는 경우의 비중도 19세기 들어 감소했는데 이 같은 거래 규모별 분포의 변화는 조선 후기에 외거 노비를 중심으로 노비 도망이 이루어지고 전체 노비 중에서 솔거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표 5> 거래 노비 중 婢의 비중 변화 (%)

16세기 후반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체 시기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53.2	43.6	56.1	52.7	52.7	57.9	55.1	59.3	65.3	61.5	56.4

<표 5>는 매매된 노비 중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가 사용한 문기에는 거래된 隸屬民이 奴인지 婢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했다. 전체 거래 중에서 婢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들어 현저히 증가했다. 가족 내 평균 性比는 남자 50%, 여자 50%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사실은 위에서 확인한 가족 단위 매매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정합적이다.<sup>14)</sup>

<표 6> 거래 노비 중 자매 노비의 비중 변화 (%)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체 시기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거래 인수	0.0	0.0	0.0	0.0	0.2	9.8	4.7	27.8	44.9	34.2	12.1
거래 건수	0.0	0.0	0.0	0.0	0.6	14.0	6.5	28.2	45.9	36.0	15.3

<표 6>은 매매된 노비들 중에서 자매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13) 이 서술은 외거노비는 가족 단위로 매매되었으며, 솔거노비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매매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형택(1992)은 도망 노비는 주로 외거 노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 이 같은 추세의 존재는 정석중(1983, pp. 207-216)과 이영훈(1998, pp. 403-405)이 지적한 바 있으며 이정수·김희호(2008a, p. 370)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변해왔는지를 보여 준다. 자매 노비가 우리의 자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전반인데 당시 자매 노비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미미했다. 그러나 이 비중은 이후 빠르게 증가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절반에 가깝게 되었다. 이 것은 노비 시장의 성격이 조선 후기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18세기 후반부터 신분 세습을 통해 노비가 된 노동자를 거래하는 시장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비 신분을 선택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sup>15)</sup> 18, 19세기에 거래된 자매 노비 중 64%가婢였는데 19세기 전반까지는 비의 비중이 50%를 조금 넘는 정도였지만 19세기 후반 들어 80%로 급증했다.<sup>16)</sup>

우리가 수집한 노비 문기에 나타나는 노비 거래의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비 거래는 늦어도 18세기 후반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19세기 초에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모르나 19세기 후반에 더욱 감소했다. 거래 당 매매되는 평균 노비수는 조선 후기 동안 줄곧 감소했다. 평균 거래 규모의 감소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족 단위의 매매일 가능성이 높은 2-5명이 동시에 거래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한 명이 거래되는 경우가 증가한 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동안 노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비 중婢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18세기 후반이 되면 자매 노비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매 노비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sup>17)</sup>

이런 추세들은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로서의 노비 제도가 사라져 가고

15) 이는 121건(213구)에 달하는 자매 노비 거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재호(2005)는 46개(총 80구), 그리고 이정수·김희호(2008)는 32개(총60구)의 자매 노비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김재호(2005, p.13)는 1820-50년대에 자매 거래 건수와 거래 구수가 급감하였음을, 또 이정수·김희호(2008a, p.376)는 1820-1860년에 자매노비의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김희호(2008a, pp.375-376)는 “거래 건수”의 감소경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거래 구수”의 잘못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표 6>과 달리 거래 건수의 비중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없다.

16) 김재호(2005, p.21)도 비슷한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수·김희호(2008a, p.377)는 자매 노비 매매에서 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수·김희호(2008a)의 이 같은 결론은 32건의 자매 거래를 기초로 한 것인데 비해 우리의 결론은 96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7) 이정수·김희호(2009)는 18세기 전반에 비해 후반에 걸쳐 雇工의 수가 감소하며 雇工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한 노비 매매 문기에 나타나는 노비 거래 건수 및 거래 구수 감소, 그리고 비 거래 비중 증가와 유사한 경향이다.

있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무엇보다 2장에서 인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대로 숙종, 영조, 정조가 실시한 정책들 때문에 도망과 결혼을 통해 노비들이 노비 신분을 벗어 던지기 쉬워졌고 그래서 전체 노비 인구 감소와 노비 거래 감소를 가져 온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19세기 들어 왕권이 약화되면서 反노비제도 정책이 중단 되었지만 노비제도는 숙종, 영조, 정조가 노비제도에 가한 타격으로부터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분 제도로서의 노비제도가 해체되고는 있었지만 인신매매 제도는 계속 남아 기능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조선 정부는 인간에 대한 재산권을 부정한 적이 없고 일단 취득한 노비에 대한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으며 노비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 일도 없다(김재호, 2005). 오히려 조선 정부는 노비 판매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만든 노비 문기를 공증해 주는 관행, 즉 立案 발급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매매 문기의 노비 소유권 증명 능력을 강화해 주었다. 또 추쇄 제한 조치는 노비 주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었지만 추쇄 제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잘 알기 어렵다. 전형택(1992)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불법적인 노비 추쇄를 자행하고 있었고 이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18세기말부터는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인의 자기 판매, 즉 자매 노비 거래가 빠르게 증가해 갔다.

#### IV. 노비 가격 추정 방법과 결과

이 절에서 우리는 노비 거래 문기에 기록된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노와 비의 가격이 어떻게 달랐으며, 연령대별로 노와 비 가격은 어떻게 달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추정한다. III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수집한 노비 거래 문기는 16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의 시기에 작성된 것들이지만 이 중 우리가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시작한 1678년 이후부터 1889년까지의 두 세기 남짓 동안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1678년 이전의 노비 거래기록에는 거래액이 대부분 면포, 소, 말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재화들 사이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678년 이후에도 현물로 거래액이 기록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래도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한 자료로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1890년 이후의 거래 기록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1890년 이후가 되면 당오전, 백동화 등 악화가 널리 통용되게 되므로 노비 거래 문기에 기록된 거래 총액이 상평통보로 지불된 것인지 악화로 지불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678-1889년간 동전으로 이루어진 매매 기록인데 총 수는 595건이며 이를 통해 거래된 인간은 1,264명이다.

노비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는 노의 가격도 있고 비의 가격도 있으며 거래된 노나 비의 연령도 제 각각이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노나 비가 매매된 경우도 있지만 노비의 가족 전체가 매매된 경우도 있다. 김희호·이정수(2006; 2008a; 2008b)는 이런 자료로부터 성인 노 1명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성인 노와 비의 가격이 같다고 가정하고 성인 노 이외의 노비 가격을 성인 노 가격으로 전환해서 매 10년마다의 단순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나 노비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婢의 가격은 그렇지 못한 奴의 가격과 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김희호·이정수(2008a, p. 383)는 비의 가격이 노의 가격 보다 현저히 높았음을 시사하는 증거, 즉 자신들의 노비 가격 추정 절차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sup>18)</sup> 또 김희호·이정수(2006; 2008a; 2008b)는 10년 간격의 단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15세 이하와 51세 이상의 노비 가격이 16세에서 50세까지의 노비 가격의 3/4라는 가격 비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15세기 경국대전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당시의 시장 가격과 잘 일치하고 있는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선 후기의 가격 비율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게다가 외국의 노예제 연구에 따르면 노예가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20대를 정점으로 노화과정에 들어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Fogel and Engerman(1974, p. 76); Friginals, Klein and Engerman, 1983).

노비 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들은 개별 노 또는 비의 가격,

18) 이정수·김희호(2008a, p. 383)는 노예 대한 비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들어 점점 커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정수·김희호(2008a, p. 383, 표 9)는 거래되는 노와 비 각각의 연령 구성의 차이가 노와 비 각각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이 같은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이 증가했는지는 이 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수집한 노비 거래액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노와 비를 개별적으로 혹은 묶어서 사고 팔 때 지불된 노비 거래 총액 자료로부터 일정한 특성을 가진 예측 노동자 한 명의 가격 - 가령 30대 奴의 가격 - 을 계산해 내는 한 방법은 식 (1)을 추정하는 것이다.

$$\begin{aligned} \log(NSLAVEP_i) = & \alpha + \sum_t \beta_t \cdot DECADE_t + \sum_j \gamma_j \cdot FAGE_j \\ & + \sum_j \delta_j \cdot MAGE_j + \zeta \cdot FSLAVE + \eta \cdot MSLAVE \\ & + \theta \cdot SLAVE + \iota \cdot SS + \epsilon_i. \end{aligned} \quad (1)$$

등호의 좌변에 있는  $\log(NSLAVEP_i)$ 는 양으로 표시된 노비 거래액 관측치를 자연 대수로 변환한 값을 나타내는데 하첨자  $i$ 는 거래 액 관측치의 일련 번호로서 1에서 595까지의 값을 갖는다.  $NSLAVEP_i$ 는 다양한 규모와 구성의 노비 그룹 매입을 위해서 지불된 구매 총액이므로 몇 명의 노나 비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몇 살의 奴 나 婢가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것이다. 식 (1)의 우변에서 세 번째 항부터 교란항( $\epsilon_i$ ) 앞에 이르는 다섯 개의 항은 거래된 노비의 수와 속성이  $NSLAVEP_i$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우리는 노비의 연령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의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령이 노비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정하는데  $MAGE_j$ 와  $FAGE_j$ 는 각각 각 연령 구간별로 구매된 노와 비의 수를 나타내며  $j$ 는 연령 구간을 표시하는 하첨자로서 0에서 6까지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10대 노 3명과 30대 비 1명을 거래했다고 기록한 거래의 경우  $MAGE_1 = 3$ ,  $FAGE_3 = 1$ 의 값을 가지며 나머지  $MAGE_j$ 와  $FAGE_j$ 는 0의 값을 갖는다. 노비 거래 문기 중에는 거래된 노비의 연령은 기록하지 않고 거래된 노나 비의 숫자 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FSLAVE$ 와  $MSLAVE$ 는 각각 이런 경우 매매된 비와 노의 숫자이다. 또 거래된 사람이 노인지 비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매매 인수만이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SLAVE$ 는 이런 경우 매매 인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SS$ 는 자매 노비 거래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다.

$NSLAVEP_i$ 는 거래된 노비의 숫자와 속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비 가격 수준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1678-1889년간의 시기를

1678-1689년과 이후 10년 간격의 20개 시기(1690-1699, 1700-1709, ..., 1880-9년)로 이루어진 21개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 별로 명목 노비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정한다. 이 때 우리는 기준 시기로서 1870년대를 선택했는데 식 (1)의 우변의 두 번째 항  $DECADE_t$ 는 1870년대 이외의 기간을 나타내는 가변수로서 하첨자  $t$ 는 1에서 20까지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DECADE_t$ 은 노비 가격이 1678-89년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식 (1)은  $NSLAVE_i$ 에 미치는 거래된 노비의 숫자와 속성의 영향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절편  $\alpha$ 는 일정한 숫자와 구성을 가진 노비 그룹을 구입하기 위해 기준 시기인 1870년대에 구매자가 지불해야 했던 금액에 로그를 씌운 값을 나타낸다.  $\beta_t$ 는 1870년대가 아닌 각  $DECADE_t$ 에서 이 고정된 노비 집단의 가격이 1870년대에 비해서 몇 퍼센트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FAGE_j$ ,  $MAGE_j$ ,  $FSLAVE$ ,  $MSLAVE$ , 그리고  $SLAVE$ 의 계수들 --  $\gamma_j$ ,  $\delta_j$ ,  $\zeta$ ,  $\eta$  및  $\theta$  -- 은 각각 이 노비 그룹에 각 연령대의 비 또는 노, 연령을 알 수 없는 비 또는 노, 그리고 노인지 비인지 알 수 없는 예속 노동자 한 명을 추가할 때 총 거래 금액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SS$ 의 계수( $\iota$ )는 이 노비 그룹이 모두 세습 노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모두 자매 노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비 그룹의 가치가 몇 퍼센트 달라지는지를 말해 준다.

<표 7>은 식 (1)을 일반 최소 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으로 추정할 결과를 보여 준다. 대부분의 계수 추정치가 5% 수준에서 유의미한데 그렇지 않은 계수는 기준 년도와 1680년대와 1860년대의 노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계수( $\beta_1$ 과  $\beta_{19}$ ) 추정치, 50대, 60대의 비와 노 가격을 나타내는 계수( $\gamma_5$ ,  $\gamma_6$ ,  $\delta_5$ ,  $\delta_6$ ) 추정치, 그리고 10세 미만의 노 가격을 표시하는 계수( $\delta_0$ ) 추정치이며 이들은 표 7에서 이탤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beta_1$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delta_0$  추정치는 1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조정된  $R^2$  값은 식 (1)이 종속변수의 변이의 41%를 설명하며  $F$  통계량은 추정 계수가 동시에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 준다.

<표 7>에 제시된 계수들은 시계열적 변화와 횡단면적 변화를 같이 보여 준다. 우선 횡단면적 변이 중 연령에 따른 예속 노동자의 가격 변화와 관련된 계수 추정치를 보자.  $\gamma_j$ 는婢 가격이 10세 미만에서 20대에 이르는 사이에 약 2.5배 증가해서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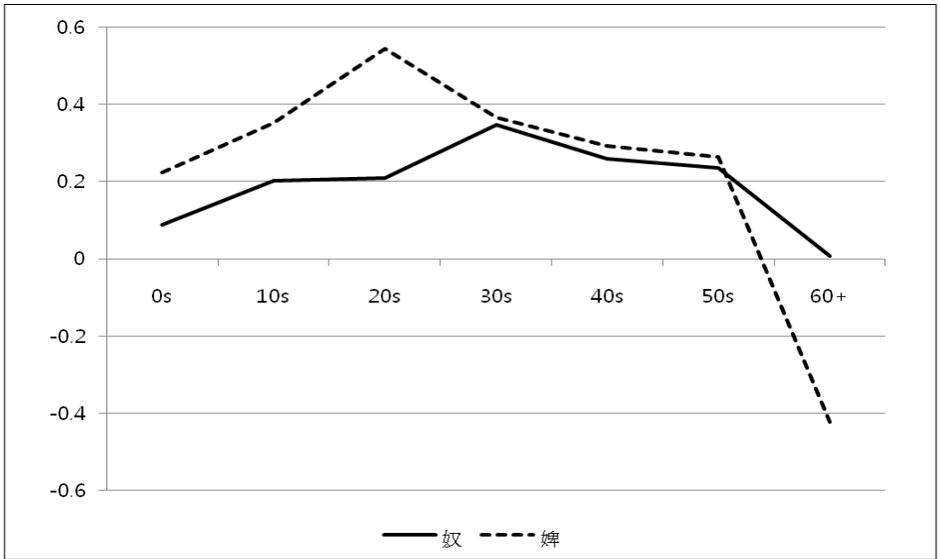
〈표 7〉 일반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식 (1) 추정결과

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alpha$	3.45	0.11
$\beta_1$	-0.65	0.33
$\beta_2$	-0.81	0.16
$\beta_3$	-0.61	0.15
$\beta_4$	-0.68	0.16
$\beta_5$	-1.22	0.15
$\beta_6$	-1.30	0.16
$\beta_7$	-1.37	0.15
$\beta_8$	-1.24	0.15
$\beta_9$	-1.25	0.18
$\beta_{10}$	-1.06	0.18
$\beta_{11}$	-1.02	0.15
$\beta_{12}$	-1.34	0.15
$\beta_{13}$	-0.81	0.15
$\beta_{14}$	-1.05	0.15
$\beta_{15}$	-0.63	0.16
$\beta_{16}$	-0.79	0.14
$\beta_{17}$	-0.84	0.16
$\beta_{18}$	-0.73	0.16
$\beta_{19}$	-0.18	0.18
$\beta_{20}$	-0.34	0.16
$\gamma_0$	0.22	0.05
$\gamma_1$	0.35	0.06
$\gamma_2$	0.54	0.07
$\gamma_3$	0.36	0.09
$\gamma_4$	0.29	0.11
$\gamma_5$	0.26	0.18
$\gamma_6$	-0.42	0.30
$\delta_0$	0.09	0.06
$\delta_1$	0.20	0.05
$\delta_2$	0.21	0.08
$\delta_3$	0.35	0.13
$\delta_4$	0.26	0.12
$\delta_5$	0.23	0.20
$\delta_6$	0.01	0.34
$\zeta$	0.33	0.05
$\eta$	0.26	0.05
$\theta$	0.30	0.03
$\iota$	-0.44	0.07
adjusted $R^2$	0.41	
F statistic	11.68	

주: 이탤릭은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정에 이르며 이후 감소 국면에 들어가 50을 넘으면 0에 접근함을 시사한다. 다음  $\delta_j$  추정치를 보면 奴 가격이 10세 미만에서 30세에 이르는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해서 절정에 이르며 이후 감소 국면에 들어가 婢와 마찬가지로 50이 넘으면 0에 접근함을 알려 준다. 50대와 60대 奴와 婢 가격을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는 앞서 지적한 대로 통상적인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50, 60대 노와 비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노비 가격의 연령별 패턴



주: 식 (1)의  $\gamma_j$  및  $\delta_j$  추정치이며 이는 각각 노와 비 가격의 연령별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의 설명을 참조하라. 50대와 60대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림 1〉은 이 같은 조선 후기 奴와 婢 가격의 연령별 변화 패턴을 보여주는데 우선 이를 경국대전에서 제시된 아동 및 노인 노비 가격의 성인 노비 가격에 대한 비율인 0.75와 비교해 보자. 우리의 연령별 노비 가격 추계는 10세 간격이므로 16-50세와 기타 연령대 사이의 가격 격차에 관한 경국대전의 규정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0대와 10대 노 평균 가격의 20대, 30대, 40대, 50대 노 가격의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55에 불과하며, 0대 노 가격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노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35에 불과하다. 비의 경우는 가격 비율이 현저히 높아서 0대와 10대 비 가격 평균의 20대, 30대, 40대, 50대 비 평균 가

격에 대한 비율은 0.79이며 0대 비 가격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비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62이다.<sup>19)</sup> 즉 성인 노비에 대한 아동 및 노인 노비 가격의 비율은 경국대전외의 규정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보다 노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이는 노와 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0.75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된 김희호·이정수(2006; 2008a; 2008b)의 노비 가격이 과대 평가치일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1〉에 나타난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연령별 변화 패턴은 미국 남부 흑인 노예나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 노예의 가격이 20대에 절정에 달했던 데 비해 남성 노예의 가격은 30세 경에 절정에 달했던 것이다.<sup>20)</sup> 또 10세 미만으로부터 절정기까지의 가격 상승폭이 여성에 비해 남성 노예의 경우가 더 컸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었다. 하나는 미국 남부 흑인 노예제의 경우 남성 노예가 여성 노예 보다 비쌌던 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비가 노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싸게 사고 팔렸다.<sup>21)</sup> 19세기 중엽 미국 남부에서는 10세 미만의 경우 성별 가격 격차가 거의 없으며 10대가 되면 남자 노예가 여자 노예보다 비싸지기 시작해서 20, 30대에 성별 가격 차이가 가장 커지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경우 10세 미만 奴 가격이婢 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婢는 20대까지 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다가 30대부터는 성별 가격 격차가 사라진다.  $\zeta$ 와  $\eta$ 의 추정치는 일정한 구성과 규모의 노비 그룹에 奴와婢가 한 명씩 추가 될 때 마다 구매액이 각각 26%와 33%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 가격이 노 가격에 비해 높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조선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이 같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와 비, 혹은 남성 노예와 여성 노예 간의 분업 체계가 남북 전쟁 이전 미국과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달랐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의 경우 여성 노예의 80% 가량이 농업 노동자였는데 이 비율은 남성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p. 30-40). 따라서 미국 남부에서는 근력이 떨어지는 여성은 남성 노예에 비해 싼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19) 이 비율은 60세 이상 노와 비의 가격이 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20) 남북 전쟁 이전 미국 흑인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턴은 Fogel and Engerman(1974, p. 76) 을, 19세기 중엽 쿠바의 크레올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턴은 Moreno Friginals, Klein, and Engerman(1983, p. 1214) 을, 그리고 18세기 말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턴은 Newland and San Segundo(1996, p. 699) 을 보라.

21) 주 21에서 소개한 연구들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자 노예가 여자 노예보다 비쌌다.

의 奴는 대부분 옥외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였는데 비해 婢는 가사 노동이나 직조 노동을 담당했다(김용만, 1996, p. 338). 그러나 이 같은 노와 비 사이의 전통적 분업이 어떤 이유로 노에 비해 비의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되었는지는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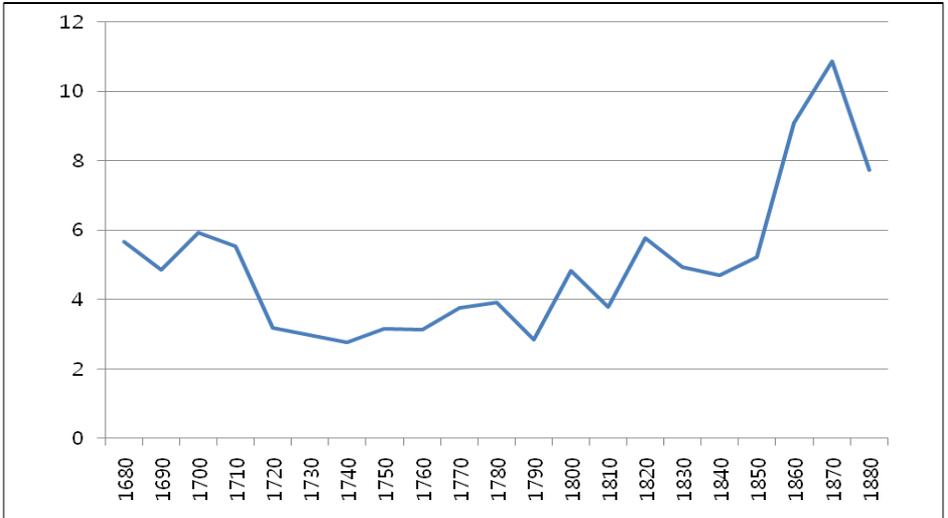
조선 후기 노비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 노예의 연령별 가격 차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한가지 차이는 조선 후기 노비들의 가격이 0에 접근하는 것은 50대를 넘어서부터 인데 비해 미국 남부 흑인 노예 가격이 0에 접근하는 것은 60세가 넘어서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흑인 노예의 평균 수명이 조선 노비의 평균 수명 보다 길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Fogel and Engerman(1974, p. 125)은 1850년경 미국 노예 평균 수명을 36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차명수(2009b, p. 124)는 18,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여명을 23세로 추정한 바 있다.

노비 가격의 횡단면적 변이와 관련된 다른 계수 추정치로는  $\theta$ 와  $\iota$ 가 있다.  $\theta$  추정치는 일정한 구성과 규모의 노비 그룹에 나이 뿐 아니라 비인지 노인지도 알 수 없는 예속 노동자가 한 명 추가되면 구매액이 30% 증가함을 알려 준다. 우리는 위에서 나이를 모르는 奴와 婢가 한 명씩 추가 될 때마다 구매액이 각각 26%와 33%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노인지 비인지가 명시되지 않은 예속 노동자의 성이 남성일 확률과 여성일 확률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iota$  추정치는 자매 노비의 가격은 신분 노비 가격에 비해 약 44% 정도 낮았음을 말해 주는데 자매 노비 가격이 신분 노비 가격에 비해 싼다는 것은 김재호(1995, p. 26)와 이정수·김희호(2008a, p. 385)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존재하는 자매 노비 가격과 신분 노비 가격의 단순 평균 사이의 격차이고 이 속에는 노비의 연령차이에 기인하는 가격 차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종류의 노비 사이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이는 적절한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우리가 얻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iota$  추정치 0.44는 연령 변화에 따른 가격 변이를 통제한 계수로 自賣와 신분 노비 간 가격 격차가 상당했음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노비 가격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자. 이를 나타내는 것은  $\alpha$ 와  $\beta_t$  추정치인데 규모와 구성이 일정한 노비 그룹의 가격이 1670년대 이후 10년 간격으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exp(\alpha)$ 와  $\exp(\alpha + \beta_t)$ 를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  $\delta_j$ 와  $\gamma_j$  추정치를 곱하면 각 연령대의 婢나 奴 한 명의 가격 시계열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노비 가격 시계열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추세를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특성의 노비들이 있고 이들의 가격은 다 다르지만 이 가격들은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하락한다는 가정을 식 (1)의 구조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30대 ㄸ의 명목 가격 추이 (단위: 냥)



자료: 식 (1)의 계수 추정치를 가지고  $\exp(\alpha + \beta_t) \cdot \gamma_3$  을 계산한 결과임.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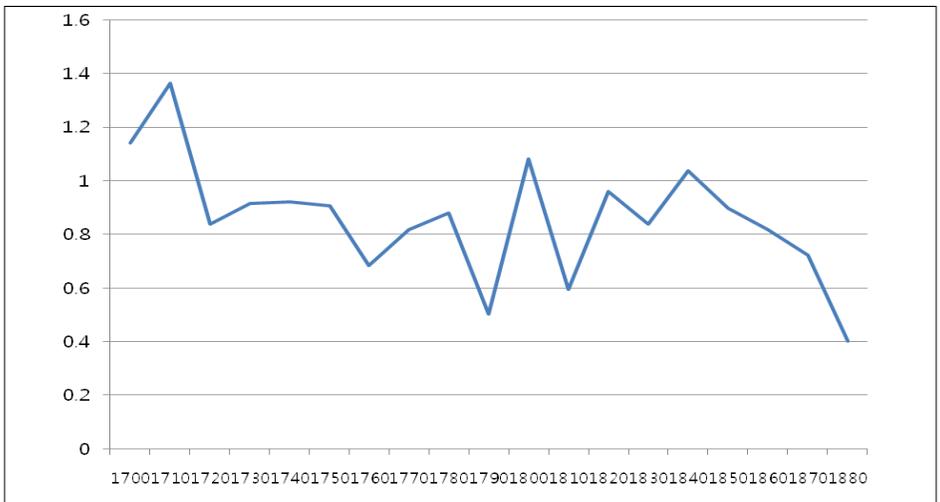
〈그림 2〉는 이렇게 구한 30대 ㄸ 한 명의 명목 가격을 보여주는데 1740년대까지 하락한 뒤 이후 상승해서 19세기 중엽에는 17세기 말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곡물 가격, 그리고 토지 가격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같은 재화와 자산 가격 추이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통화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상평통보가 1678년에 주조되기 시작했지만 1731년 영조가 동전 주조를 재개할 때까지 통화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것이 1740년대까지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후 동전 주조가 재개되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19세기 후반의 악화 주조는 재화 가격 뿐 아니라 토지나 노비와 같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켰다(이현창·차명수, 2004; 차명수, 2009a; 이정수·김희호, 2008a, p. 385).

우리의 30대 ㄸ 가격 추정치와 이정수·김희호(2008a, p. 383)의 추정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성인 노 1명의 가격은 1710-50년의 12.20냥에서 1750-90년에 9.42냥으로 1790-1820년에 7.34 냥으로 하락한 뒤 1820-60년에

10.11냥으로, 그리고 1860-94년에 12.50냥으로 상승한다. 이 숫자를 <그림 2>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비슷하지만 이정수·김희호(2008a, p. 383, 표 9)의 추정치가 전시기에 걸쳐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아동 및 노인 노비의 가격이 성인 노비 가격의 0.75였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정수·김희호(2008a)의 추정치가 과대 평가치일 것이라는 위에서의 예측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쌀 가격과 장기적 변화 방향은 비슷하지만 18, 19세기 동안의 노비 가격의 상승 폭은 쌀 가격 상승폭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19세기말의 명목 노비 가격이 17세기말의 두 배가 채 되지 못했던 데 비해 19세기 말의 쌀 가격은 17세기말에 비해 네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는 노비의 실질 가격이 조선 후기에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30대 노의 실질 가격 추이 (단위: 米石)



주: <그림 2>에 제시된 30대 奴의 명목 가격을 경주 米價로 나눈 값이며 경주 미가는 박기주·이영훈·조영준(2007)에 제시된 斗當 租價에 1석 = 15두, 1두의 米 = 2.5두의 租라는 환산 비율을 적용해서 도출했다. 여기서는 사용한 10년 평균 가격은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가격 관측치의 단순 평균이다.

<그림 3>은 <그림 2>에 제시된 30대 노 한 명의 명목 가격을 경주의 쌀 가격으로 나누어 실질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30대의 노 한 명을 사기 위해서 1700년대에는 쌀 1 석 남짓을 지불해야 했는데 쌀로 표시한 30대 노의 가격은 이후 한 세기 동안 급속히 하락해서 18세기 말에는 170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

다. 이어 19세기 초에는 노의 실질 가격이 안정되었다가 19세기 후반 들어서는 다시 하락해서 1880년대에는 1700년의 1/3 수준이 되었다.<sup>22)</sup>

1731년 종모법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노비 가격의 수준이나 구조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비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노에 비해 비 가격이 비싸졌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종모법 확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1731년 이후에 일어난 거래인 경우 1의 값을, 1730년 이전의 거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추가한 회귀식과, 이 더미 변수와 식 (1)의  $\gamma_j$ ,  $\delta_j$ ,  $\zeta$  및  $\eta$ 의 교차항을 추가한 회귀식을 추정해 보았으나 추가된 더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국남부의 흑인 노예에 대한 투자 수익율을 추정한 Conrad and Meyer (1958)에 따르면 노예 가격은 노비 보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순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한 것과 같으며 이 점에서 자본재 가격과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순수익이란 노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발생하는 생산 증가분 -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 - 에서 노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비 가격 변화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이자율, 그리고 노비 관리 비용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다.

노비 관리 비용은 주로 노비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비용과 노비를 급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 진다. 이 중 노비주는 노비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급양 비용으로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비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고정된 비용을 노비에게 넘겨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따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Findlay, 1975). 토지와 노동만 사용하는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노비 생산물의 일정 부분 ( $m$ )을 급양 비용으로 노비에게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나이가  $a$ 인 노예의 실질 가격 ( $rp_a$ )은 다음의 식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2) 이정수·김희호(2006; 2008a)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대 평가치로 보이는 명목 노 가격 추정을 영암과 경주의 미가로 나누어 하강추세를 발견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1700년 실질 노비가를 100으로 한 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추계치와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

$$rp_a = (1 - m')w \sum_{a+1}^T \frac{\rho(t:a)}{(1+r)^{t-a}} \quad (2)$$

식 (2)은 급양 비용이  $m$ 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서 Eltis, Lewis and Richardson (2005)이 도출한 실질 노예 가격 결정 식을 변형시킨 것인데  $m'$ 은  $m$ 에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노동 분배율을 나타내는 계수(혹은 생산의 노동 투입 탄력성)를 곱한 값을 나타낸다.<sup>23)</sup> 그리고  $w$ 는 실질임금,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rho(t:a)$ 는  $a$ 세의 노비가  $t$ 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r$ 은 이자율을,  $T$ 는 최장 생존 가능 연령을 나타낸다. 이 식은 관리 비용이 낮을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을수록, 생존률이 높을수록(즉 사망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실질 노비 가격이 높아짐을 말해 준다.

식 (2)는 <그림 2>가 보여주는 18, 19세기 조선 후기의 실질 노비 가격의 하락 추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우선, 이자율은 조선 후기에 하락 추세를 보였으므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실질 노비 가격은 상승했어야 했다.<sup>24)</sup> 둘째,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는 사망률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로 19세기 초의 콜레라 전파의 결과로 추측되고 있다(차명수, 2009c).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19세기 초에는 실질 노비 가격이 안정되었고 18세기와 19세기 후반에 노비 가격 하락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사망률 변화로 노비 가격 추세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차명수(2009a, p. 20)에 따르면 18, 19세기에 걸쳐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그림 2>에 나타나는 노비

23) 급양비용이  $m$ 이라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하의 논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 차명수·홍제환(2010)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논 지대를 같은 지역의 논 가격으로 나누어 암묵적 실질 이자율을 도출하고 18세기 초에 연 20%에 가까웠던 실질 이자율이 19세기 말에 10% 이하로 떨어졌음을 보였다. 이정수·김희호(2008b)는 대구 月村丹陽禹氏 고문서를 근거로 18, 19세기에 이자율이 연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런 수준의 높은 이자율은 김재호·박기주(200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이자율을 조선 시대의 할인율로 사용하는 데에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특정 지역의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의 대부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로서 이것이 얼마나 잘 전국 이자율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와 셋째는 이런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며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후반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9세기의 생활수준 하락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리스크를 포함한 명목 이자율이 18, 19세기에 불변이었다고 한다면 無 리스크 실질 이자율은 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차명수·홍제환(2010)의 발견과 정합적이다.

가격 하락 추세와 정합적이다. 더구나 노비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19세기 초에는 실질 임금 하락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식 (2)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비 감시 비용은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했고 반 노비제도 정책이 실시되었던 18세기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 실질 노비 가격이 높아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감시 비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 가격은 하락했으므로 감시 비용 변화를 가지고 노비 가격 추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론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림 3>에 제시된 실질 노비 가격추세는 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18, 19세기를 통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19세기 초 콜레라 전파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회복시켰고 그래서 노비의 실질 가격과 실질 임금이 19세기 초에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이다.<sup>25)</sup>

식 (3)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신 매매 제도 즉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기대는 노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노예제도가 합법적 제도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면서 흑인 노예의 명목 가격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북전쟁기에는 전쟁 인플레이션(Greenback inflation)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실질 노예 가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졌을 것이다(Wahl, 2008).

조선 후기에는 양난 이전의 부역 노동 체제 대신에 자발적 계약을 통해 맺어지는 고용 관계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6)</sup> 많은 조선 후기사 서술에 따르면 양난으로 관영 수공업 체제가 붕괴되고 또 노비 감소로 조선 전기의 농장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없게 되자 모군, 고공과 같은 인신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분제도로서의 노비제도와 부역 노동이 조선후기에 사라지고 고용 노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18, 19세기에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부정되거나 불안해져 가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예제

25) 19세기 초에 인구가 감소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는 조선 정부가 파악한 호총과 구총이 급감했다는 것, 족보에서 계산된 조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 동전 주조가 계속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19세기 초에 물가가 정체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권태환·신용하, 1977; 차명수, 2004; 차명수, 2009a, p.9).

26) 조선 후기에 고용 노동이 등장하고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정석중(1983), 전형택(1989), 윤용출(1998), 四方博(1938), 이정수·김희호(2009)를 보라.

도와 근대적 노동 시장은 양립 가능하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까이는 조선에서 18세기부터 등장한 자매 노비이며 멀게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예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조선 정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격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1801년의 공노비 해방이며 다른 하나는 1886년 노비 신분 세습 폐지 조치이다. 이에 비해 18세기에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반 노비제 정책은 노비 관리비용을 올리고 노비 수익율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노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림 3>을 보면 우선 1800년대 초에 실질 노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1801년의 공노비 해방이 노비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공노비 해방이 중모법 아래서 양천 교환을 통해 공노비가 거의 사라져 버린 현실을 인정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 데 불과했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전형택, 1989, pp.228-232). 다음으로 <그림 3>은 1880년대에 실질 노비 가격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1886년 노비 신분 세습 폐지 조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실질 임금도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1880년대 실질 노비 가격 하락을 모두 노비 신분 세습 폐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 상당 부분은 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명수(2009a)가 추계한 실질 임금을 <그림 3>에 제시된 실질 노 가격과 비교하면 조선 후기에 30대 노 한 명의 가격은 10-30일 임금에 해당한다. 이는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1850년경 30세 남성 흑인 노예 1명 가격은 약 800 달러였는데 비숙련 노동자 일급이 0.85달러였으므로 노예 가격은 비숙련 노동자 2년 반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 76; Margo, 2000).

미국 남부에 비해 노비 가격/임금 비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다시 식 (2)로 돌아 갈 필요가 있다. 식 (2)에 따르면 이 비율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노비 관리 비용, 생존률, 그리고 이자율인데 1860년 이전 미국 남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이자율은 높았으며, 생존률이 낮았고 또 노비 관리 비용이 높았다. 즉 이 세가지 요인이 모두 미국에 비해 조선 후기의 노비 가격/임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우선 이자율 격차를 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암묵적 이자율은 18세기 초에 2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가 19세

기 말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무 리스크(risk free)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비교 될 수 있는 것은 국채 이자율인데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 이자율은 1800년에 7% 정도였다가 19세기 말에는 2.5% 정도로 하락했다 (Homer and Sylla, 1996, p. 280). 둘째, 사망률 격차를 보면 1850년경 미국 노예의 평균 수명은 36세로서 18,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여명 23세보다 현저히 길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 125; 차명수, 2009b, p. 124). 마지막으로 노비 관리 비용 중 감시 비용을 보면, 먼 곳으로 도망쳐 신분을 감추고 자유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은 미국의 흑인 노예보다 눈으로 보아서는 양인인지 노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조선 후기의 노비의 경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조선 정부처럼 도망친 노예를 추적해 잡아오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의 노비 관리 비용이 미국 남부에 비해 현저히 높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와 후기 조선 간의 이자율 및 생존율의 격차는 50배 정도나 되는 노예 가격/임금 비율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지역 사이의 노예 가격/임금 비율 차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예 제도와 노비 제도 아래서의 예속 노동자 관리 비용 차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17세기말에 반노비제도 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서 노비 신분 세습과 추쇄에 제한이 가해지기 이전에는 그 이후에 비해 쌀로 표시한 조선 노비의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은 이 추론이 타당함을 말해 준다. 양동휴·이영훈(1998, p. 324)에 따르면 1690년을 전후 한 시기에 노비 가격이 구당 20석에서 2-3석으로 폭락해서 이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실질 임금은 이 기간 동안 정체하거나 매우 완만한 속도로 하락했다(차명수, 2009a, p. 13).<sup>27)</sup> 뿐만 아니라 고려 초기의 공정 노비 가격은 100-120 일간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경국대전에 기록된 공정 노비 가격은 약 666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이영훈, 1998, p. 371). 공정 가격의 이 같은 변화는 조선 건국으로 한 편으로는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노비 소유 계급인 사대부가 왕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노비 소유주에게 유리한 정책이 경국대전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I절에서의 우리의 주장과 합치한다. 결국 조선 후기에 노비가격/임금 비율이 낮았던 것은 강화된 왕권이 추진한 반 노비제도 정책의 영향으로 노비 감시 비

27) 이영훈(1998, p. 404)도 17세기말에 노비 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말 反노비제도 정책으로의 전환은 조선의 노비를 노예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농노에 가까운 존재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는 조선 후기의 노비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음을 의미하며 조선 후기 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다는 Palais(1996)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게 하는 한 근거가 된다.

이 절의 주장을 요약하면, 18, 19 세기의 실질 노비 가격에는 이자율, 사망률, 노비 관리 비용,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실질 노비 가격은 실질 임금 보다 현저히 느리게 하락했다.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는 실질 노비 가격 하락 속도가 느렸는데 이는 19세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反노비제도 정책이 완화되어 노비 관리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8, 19세기에 걸쳐 노비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실질 임금 하락이 보여주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 V. 결 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조선 후기의 성별 및 연령별 노비 가격 차이를 추정하고 또 이를 통제하면서 노비 가격의 시간 추세를 추정했다. 이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노비 거래 기록 자료 수를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여기에 포함된 거래 정보를 헤도닉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분석 결과는 우선 조선 후기의 노비 가격도 서구의 노예 가격과 마찬가지로 비의 경우 20대, 노의 경우 30세 경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는 패턴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령 변화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 가격 격차를 보면 미국 남부나 쿠바의 노예제도에서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싸게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명목 노비 가격은 재화가격과 비슷한 추세를 따라 변화했다. 즉 동전으로 표시한 노비 가격은 1740년경까지는 완만히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상승 속도는 19세기 후반에 더 빨라졌다. 이는 주로 통화량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명목 노비 가격 상승 속도는 곡물 가격 상승 속도보다 현저히 느렸고 따라서 실질 노비 가격은 18, 19세기에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 두 세기 동안 이자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노비 관리비용은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실질 노비 가격 하락 추세는 노비 노동의 한계

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정합적이다.

## ■ 참고 문헌

1. 권태환·신용하, “조선왕조시대 인구추정에 관한 일 시론,” 『동아문화』, 14, 1977, pp. 289-330.  
(Translated in English) Kwon, Tae-hwan and Yongha Shin, “An Estimate of Population in Choson Dynasty,” *Dongamunhwa*, Vol. 14, pp. 289-330.
2. 김상환, “조선후기 공노비의 신분변동,” 『경북사학』, 제12호, 1989, pp. 41-96.  
(Translated in English) Kim, Sanghwan, “Changing Status of Public Slaves in Late Choson Period,” *Kyongbukсахak*, Vol. 12, 1989, pp. 41-96.
3. 김용만, “노비생활,” 한국고문서학회 편, 『조선시대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man, “Life of Slaves,” Hankuk Komunso Hakhoe, ed., *History of Everyday Life in Choson Period*, Seoul: Yoksapipyongsa, 1966.
4. \_\_\_\_\_,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서울: 집문당, 1997.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man, *A Study on Private Slaves in Choson Period*, Seoul: Jipmundang, 1997.
5. 김용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서울: 일조각, 1970.  
(Translated in English) Kim, Yongsop, *Agricultural History of Late Choson Period*, Seoul: Ilchogak, 1970.
6. 김재호, “자매노비와 인간에 대한 재산권, 1750-1905,” 『경제사학』, 38, 2005, pp. 3-39.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ho, “Self-Selling and Property Right in Human-Beings,” *Kyungje Sahak*, Vol. 38, 2005, pp. 3-39.
7. 김재호·박기주, “농촌이자율의 장기변동,”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 109-145.  
(Translated in English) Kim, Jaeho and Kijoo Park, “Secular Trend in Rural Interest Rate,” in Younghoon Rhee, ed., *Quantitative Studies in the Economy of Late Dynastic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4, pp. 109-145.
8. 박광용,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4.  
(Translated in English) Park, Kwangyong, “A Study in ‘Tangpyong’ in Late Choson Period,” Unpublished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9. 박기주·이영훈·조영준, “물가”,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07-8, 2007.

- (Translated in English) Park, Kijoo, Younghoon Rhee, and Yongjun Cho, "Prices,"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2007-8, 2007.
10. 이영훈·양동휴, "朝鮮 奴婢制와 美國 黑人奴隸制: 比較史的 考察," 『經濟論集』, 37-2·3, 1998, pp. 293-336.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and Donghy Yang, "A Comparison and Nobiche in Choson Korea and Black Slavery in Antebellum U. S.," *Kyongjenonjip*, 37-2 · 3, 1998, pp. 293-336.
  11.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Translated in English) Yun, Yongchul, *Yoyokche and Wage Labor in Late Choso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8.
  12. 元裕漢, "朝鮮後期 貨幣流通에 대한 一考察: 錢荒問題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7, 1972, pp. 131-50.  
(Translated in English) Won, Yuhan, "Money Circulation in Late Choson Korea," *Hanguksayonku*, 7, 1972, pp. 131-50.
  13. \_\_\_\_\_, 『조선후기화폐사』, 서울: 혜안, 2005.  
(Translated in English) Won, Yuhan, *A Monetary History of Late Choson Korea*, Seoul: Hyeon, 2005.
  14. 이세영, 『조선후기정치경제사』, 서울: 혜안, 2002.  
(Translated in English) I, Seyoung, *A Political and Economic History of Late Choson Korea*, Seoul: Hyeon, 2002.
  15. 이영훈, 『朝鮮後期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1988.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A Socioeconomic History of Late Choson Korea*, Seoul: Hangilsa, 1988.
  16. \_\_\_\_\_, "조선사회의 경제," 정창수 편, 『한국사회론』, 서울: 사회비평사, 1995.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The Economy of Choson Korea," Changsoo Chong, ed., *Hanguk Sahoeron*, Seoul: Sahoepipyongsa, 1995.
  17. \_\_\_\_\_,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노비·농노·노예 - 예속민의 비교사』, 서울: 일조각, 1998.  
(Translated in English) Rhee, Younghoon, "Characteristics of Korean Slavery," in Yoksahakhoe ed., *Nobi, Nongno, Noye - Yesokmin ui Pigyosa*, Seoul: Ilchogak, 1998.
  18. 이우연·차명수 "조선후기에 생산력은 발전하고 있었나? 노비시장의 증거," 역사학대회 발표논문, 2008.  
(Translated in English) Lee, Woo Youn and Myung Soo Cha, "Did Productivity Improve in Late Dyanstic Korea?" Paper Presented to ? Meeting of Historical Societies of Korea, 2008.
  19. 이정수·김희호, 『조선시대 노비와 토지 소유방식』,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Translated in English) I, Chongsu and Huiho Kim, *Land and Slaver Ownership in Choson Korea*, Taegu: Kyungbuk University Press, 2006.
  20. \_\_\_\_\_, "조선후기 奴婢賣買 자료를 통해 본 奴婢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奴婢價의 변동," 『한국민족문화』, 31, 2008a, pp. 363-408.

- (Translated in English) I, Chongsu and Huiho Kim, "Prices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laves: An Analysis of Slave Transaction Records," *Hanguk Minjok Munhwa*, 31, 2008a, pp.363-408.
21. \_\_\_\_\_, "조선 후기奴婢價 변동의 원인," 『지역과 역사』, 23, 2008b, pp.171-207.  
 (Translated in English) I, Chongsu and Huiho Kim, "Causes of Fluctuations in the Prices of Male and Female Slaves in Late Choson Korea," *Chiyok kwa Yoksa*, 23, 2008b, pp.171-207.
22. \_\_\_\_\_, "17-18세기 雇工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 『경제사학』, 47, 2009, pp.3-37.  
 (Translated in English) I, Chongsu and Huiho Kim, "A Reinterpretation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 of Kogong in Seventeenth and Nineteenth Century Korea," *Kyungje Sahak*, 47, 2009, pp.3-37.
23. 이현창·차명수, "우리나라의 논가격 및 생산성, 1700-2000," 이영훈 편,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147-171.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and Myung Soo Cha, "Price and Productivity of Paddy Land in Korea, 1700-2000," in Younghoon Rhee, ed., *Quantitative Studies in the Economy of Late Dynastic Korea*, Seoul: Seoul University Press, 2004, pp.147-171.
24. 이현창, "1678-1866년간 貨幣量과 貨幣價値의 推移," 『經濟史學』, 27, 1999, pp.3-25.  
 (Translated in English) Lee, Hunchang, "Money Stock and Value of Money from 1678-1866," *Kyungje Sahak*, 27, 1999, pp.3-25.
25. 임학성, "조선 후기 호적대장에 보이는 사노비의 二重登載相에 대하여," 『고문서연구』, 3, 1992, pp.23-34.  
 (Translated in English) Im, Haksong, "Dual Registration of Private Slaves in Household Registers in Late Choson Korea," *Komunso Yongu*, 3, 1992, pp.23-34.
26. 전형택, 『조선 후기 노비신분연구』, 서울: 일조각, 1989.  
 (Translated in English) Chon, Hyongtaek, *A Study on Slavery in Late Choson Korea*, Seoul: Ilchogak, 1989.
27. \_\_\_\_\_, "조선 후기 노비의 토지소유: 기상전답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71, 1990a, pp.63-84.  
 (Translated in English) Chon, Hyongtaek, "Landownership of Slaves in Late Choson Korea in Reference to Kisangchontap," *Hanguksa Yongu*, 71, 1990a, pp.63-84.
28. \_\_\_\_\_, "토지소유경향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 『東洋學』, 20, 1990b, pp.367-377.  
 (Translated in English) Chon, Hyongtaek, "Patterns of Landownership of Slaves in Late Choson Korea," *Tongyanghak*, 20, 1990b, pp.367-377.
29. \_\_\_\_\_, "조선 후기 사노비의 추쇄," 『전남사학』, 6집, 1992, pp.35-70.  
 (Translated in English) Chon, Hyongtaek, "Recapturing Runaway Slaves in Late Choson Korea," *Chonnam Sahak*, 6, 1992, pp.35-70.
30. 정석중, 『조선 후기 사회변동연구』, 서울: 일조각, 1983.  
 (Translated in English) Chong, Sokjong, *Socioeconomic Changes in Late Choson Korea*, Seoul: Ilchogak, 1983.

31. 차명수, “양반들의 출생과 사망, 1700-1938: 네 족보의 분석,” 경제사학회 및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주최 학술대회 조선 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발표논문, 2004.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Genealogical Records of Birth and Death of Yangban Males, 1700-1938,” paper presented at Understanding Population and Family, conference held by Economic History Society of Korea and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2004.
32. \_\_\_\_\_, “의례에 나타난 조선 중후기의 비숙련 실질 임금 추세, 1600-1909,” 『경제사학』, 46호, 2009a, pp. 3-28.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Trend in Unskilled Real Wages in Korea, 1600-1909,” *Kyungje Sahak*, 46, 2009a, pp. 3-28.
33. \_\_\_\_\_, “조선 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물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2권 1호, 2009b, pp. 113-137.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Fertility, Mortality, and Population Growth in Late Choson Korea: an Analysis of Four Genealogies, 1700-1899,” *Hanguk Inguhak*, 32(1), 2009b, pp. 113-37.
34. \_\_\_\_\_, “조선 후기의 생산 요소 가격과 인구변동,” 2009년 8월, 낙성대경제연구소 학술대회, 『한국의 역사통계: 맬더스 세계로부터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발표논문, 2009c.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Factor Prices and Demographic Change in Late Choson Korea,” Paper Presented at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 from Malthusian Stagnation to Modern Economic Growth*, Conference Held by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in August 2009, 2009c.
35. 차명수·홍제환, “조선 후기 곡물 및 농토 가격 추이, 1700-1899,” 제5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논문, 2010.  
(Translated in English) Cha, Myung Soo and Jeahwan Hong, “Trends in Grain and Farmland Prices in Late Choson Korea, 1700-1899,” Paper Presented at the 53rd Meeting of Historical Societies of Korea, 2010.
36. 홍순민, “숙종초기의 정치구조와 ‘換局,’” 『한국사론』, 15, 1986, pp. 129-199.  
(Translated in English) Hong, Sunmin, “Political Structure in Early Sukjong Period and ‘Hwanguk,’” *Hanguksaron*, 15, 1986, pp. 129-199.
37. 武田幸男, 『學習院大學藏朝鮮戶籍臺帳の基礎的研究-19世紀慶尙道鎭海縣の戶籍臺帳を通じて-』, 東京: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83.  
(Translated in English) Takeda, Yukio, *A Preliminary Analysis of Household Register of Chihae in the 19th Century*, Tokyo: Kakushuindaigakutoyobunkakenkyujo, 1983.
38.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的考察,”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十冊朝鮮經濟の研究』, 1938.  
(Translated in English) Shikata, Hiroshi, “Distribution of Population of Late Choson Korea by Social Class,” *Chosen Keizai no Kenkyu*, Seoul: Keijo Teikokudaigaku Hougakkai, 1938.
39. 平木實, 『조선후기노비제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82.  
(Translated in English) Hiraki, Minoru, *A Study in Slavery of Late Choson Korea*, Seoul: Chisiksanopsa, 1982.

40. Conrad, A. H., and J. R. Meyer, "The Economics of Slavery in the Ante Bellum Sou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April 1958, pp.95-130.
41. Duncan, John B., *The Origins of the Chosŏn Dynas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42. Eltis, D, Frank D. Lewis, and David Richardson, "Slave Prices, the African Slave Trade, and Productivity in the Caribbean, 1674-1807," *Economic History Review*, LVIII, 4, 2005, pp.673-700.
43. Findlay, R., "Slavery, Incentive, and Manumiss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No. 5, 1975, pp.923-933.
44. Fogel, Robert W. and Stanley L. Engerman, *Time on the Cross: the Economics of American Negro Slavery*, New York: Norton, 1974.
45. Margo, M., *Wages and Labor Markets in the United States, 1820-1860*,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2000.
46. Moreno Fraginals, Manuel, Herbert S. Klein and Stanley L. Engerman, "The Level and Structure of Slave Prices on Cuban Plantations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Some Comparative Perspectives," *American Historical Review*, 88: 5, 1983, pp.1201-1218.
47. Newland, Carlos and Maria Jesus San Segundo, "Human Capital and Other Determinants of the Price Life Cycle of a Slave: Peru and La Plata in the Eighteenth Centu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56(3), 1996, pp.694-701.
48. Homer, Sidney and Richard Sylla, *A History of Interest Rat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96.
49. Palais, James. B., *Politics and Policy in Traditional Kore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50. \_\_\_\_\_,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1996.
51. Wahl, Jenny B., "Slavery in the United States," EH. Net Encyclopedia, edited by Robert Whaples. March 26, 2008, URL <http://eh.net/encyclopedia/article/wahl.slavery.us>.

## Structure and Level of Slave Price in Late Choson Korea, 1678-1889

Myung Soo Cha\* · Woo Youn Lee\*\*

### Abstract

Applying hedonic regression technique to slave transactions data, this article estimates prices of Korean slaves from 1678-1889. Female and male slave prices followed an inverted U-shaped age pattern reaching peak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respectively, with female slaves being more expensive than male slaves. Nominal slave prices tended to fall until around 1740 and then to rise, a pattern also found in grain and land prices and consistent with a trend in money supply. Slave prices as standardized by rice prices tended to fall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which indicates declining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

**Key Words:** slave price, Choson Korea

---

*Received: May 14, 2010. Revised: June 30, 2010. Accepted: Oct. 11, 2010.*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49, South Korea, Phone: +82-53-810-2714, e-mail: mscha@ynu.ac.kr

\*\* Research Fellow, Naksung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933-6, Bongcheon-dong, Kwanak-gu, Seoul 151-843, South Korea, Phone: +82-2-886-8186, e-mail: wooyoun@skku.edu